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반정호*

I. 머리말

최근 20여 년간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는 복지국가의 도전 요인으로 등장했고 복지국가에 대한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 환경변화 요인으로 인구조조 변화, 세계화, 가족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복지국가의 지출증가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대다수 복지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 기제(mechanism)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그중에서도 가구구성의 변화(changes in family formation)가 가져오는 빈곤과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Western, 2006; Massey, 2007; 반정호, 2011).

전 세계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가구 구성방식의 다양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 전체가구의 15.7%를 차지하던 여성가구의 비중은 2010년 현재 22.2%까지 증가해 여성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가구구성의 세대 차원을 고려하면 1세대로만 구성된 부부가구가 1980년 6.3%에서 2010년 15.2%까지 8.9%p 증가했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중이 같은 기간 53.0%에서 41.3%로 감소했다. 또한 가구의 구성원 수를 고려하면 1인 가구의 증가가 1980년 4.8%에서 2010년 현재 23.9%로 단독가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1).

1인 가구의 증가양상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만혼의 증가,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이혼 및 별거, 한국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기러기 가족의 증가, 노동시장 경쟁구조에 기인한 대도시 중심의 취업형 단독가구,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변미리, 2008). 전반적으로 가구구성의 다양화는 급변하는 환경 및 욕구에 대한 물질적·정서적 가족자원의 획득이나 대응양식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족생계를 위협하는 저소득과 빈곤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들 가구의 다양한 형성요인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초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경제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전국의 1인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인구센서스나 가계조사 등 각종 사회통계의 조사단위인 가구¹⁾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 1인 가구라 함은 앞서 정의된 가구 내 구성원이 1인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하며, 아울러 결혼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이나 학업, 기타의 사유로 비동거 상태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비동거 자녀 및 기타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단독가구(1인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가구경제 및 노동시장 특성과 변화를 다인가구(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1인 가구의 내부이질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별 가구경제적 특성을 파악한다.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일련의 분석들을 요약·정리하고 1인 가구 증가추세와 특성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Ⅱ.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특성 비교

통계청(2011)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부문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3.9%(4,142천 가구)로 2005년 20.0%에서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0년 4.8%에 비해 무려 19.1%p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인 가구는 같은 기간 10.5%에서 13.8%p 증가한 24.3%로 집계됐다.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의 19.2%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고, 53.5%가 여성이며, 남성은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7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 가구는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다르고, 동거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혈연관계만 포함하는 ‘가족’과도 차이가 있다.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에서 거주(59.4%)하며, 점유형태는 월세(39.5%)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 가구원 수 규모(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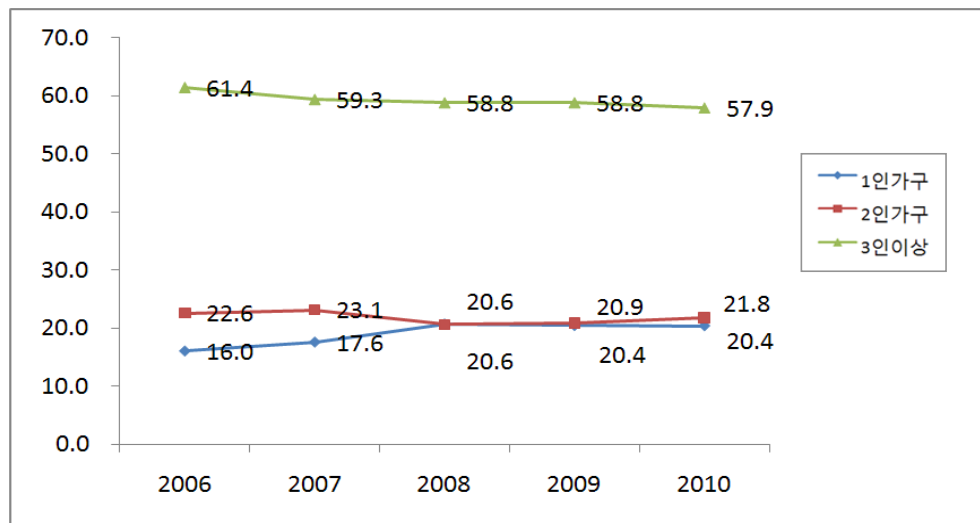
(단위:천 가구,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인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3,171 (20.0)	4,142 (23.9)
2인	840 (10.5)	1,176 (12.3)	1,566 (13.8)	2,185 (16.9)	2,731 (19.1)	3,521 (22.2)	4,205 (24.3)
3인	1,153 (14.5)	1,580 (16.5)	2,163 (19.1)	2,636 (20.3)	2,987 (20.9)	3,325 (20.9)	3,696 (21.3)
4인	1,620 (20.3)	2,422 (25.3)	3,351 (29.5)	4,110 (31.7)	4,447 (31.1)	4,289 (27.0)	3,898 (22.5)
5인 이상	3,974 (49.9)	3,734 (39.0)	3,253 (28.7)	2,385 (18.4)	1,922 (13.4)	1,582 (10.0)	1,398 (8.1)

주: ()는 구성비중임.
 자료: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가구주택) 결과」, 보도자료.

[그림 1] 1인 가구의 비중변화: 「가계동향조사」 분석결과(2006-2010년)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가구원수별 구성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1인 가구 비중은 16.0%, 2인 가구 22.6%, 3인 이상 가구 61.4%로 분석되었으나 2010년 1인 가구 비중은 20.4%로 2006년에 비해 4.4%p 증가한 반면, 2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는 각각 0.8%p,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표 2>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단독 가구의 가구주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남성의 비중이 33.2%, 여성이 66.8%로 여성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다. 반면 다인가구는 남성과 여성 가구주 비중이 각각 82.0%, 18.0%로 단독가구와 대조를 이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가구는 11.1%, 장년(31~64세)과 노인(65세 이상)은 각각 53.5%, 35.4%로 나타난다. 다인가구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2.8%, 장년층이 85.1%, 노인층 비중이 12.2%로 분석되어 단독가구의 청년층 및 노인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단독가구의 저학력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독가구의 중졸 이하 비중이 2010년 기준 55.9%로 다인가구 중졸 이하 비중 21.1%와 대조를 이룬다. 반면 단독가구의 대학 이상 고학력층 비중은 11.6%로 역시 다인가구(27.3%)와 비교해 사뭇 다른 양상이다.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령대별 학력구성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청년층의 절반 이상(54.9%)은 전문대학과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장년층과 노인층은 각각 16.7%, 1.7%에 불과하다. 즉 최근 결혼관의 변화 등에 따른 만혼화 현상과 고학력 청년층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세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표 2>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인가구와의 비교

(단위: %)

		2006		2008		2010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단독가구	다인가구
성	남성	31.4	81.0	32.5	81.0	33.2	82.0
	여성	68.6	19.1	67.5	19.0	66.8	18.0
연령	청년	14.2	3.7	13.4	3.6	11.1	2.8
	장년	47.9	86.0	46.9	84.2	53.5	85.1
	노인	37.9	10.3	39.8	12.2	35.4	12.2
학력	중졸 이하	58.7	25.6	56.8	22.9	55.9	21.1
	고졸 이하	25.9	43.2	25.3	42.2	28.5	41.9
	전문대졸	5.2	7.7	4.0	9.3	4.0	9.7
	대학 이상	10.2	23.5	13.9	25.6	11.6	27.3

주: 다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에서는 1인 가구의 가구경제적 특성을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 주고 있다. 먼저 1인 가구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7.9%, 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이 62.1%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단독주택 비중이 35.4%로 2.5%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인 이상의 다인가구는 2010년 기준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중이 각각 3.6%, 5.2%로 낮은 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이 37.3%, 53.9%로 나타

<표 3> 1인 가구의 가구경제적 특성: 다인가구와의 비교

(단위: %, 천 원)

		2006		2008		2009		2010	
		단독 가구	다인 가구	단독 가구	다인 가구	단독 가구	다인 가구	단독 가구	다인 가구
주거형태	단독	37.9	4.6	39.8	5.6	37.9	5.8	35.4	5.2
	아파트	0.0	3.7	0.0	3.3	0.0	3.3	0.0	3.6
	연립주택	0.0	34.6	0.0	34.5	0.0	36.4	0.0	37.3
	다세대	62.1	57.2	60.2	56.7	62.1	54.5	64.6	53.9
점유형태	자가	36.8	60.9	40.6	63.9	40.4	65.0	39.9	65.3
	무상주택	7.9	3.3	9.8	3.2	9.6	2.9	8.1	2.7
	사택	1.0	0.9	0.4	0.6	0.3	0.4	0.2	0.3
	전세	26.5	21.4	21.0	20.5	20.6	20.1	23.2	20.4
	영구임대	0.0	0.0	0.0	0.0	0.9	0.5	1.9	1.0
	월세	27.8	13.5	28.3	11.9	28.2	11.1	26.7	10.3
가계재무	경상소득	1,025	2,906	1,141 (3.4)	3,254 (6.3)	1,108 (-2.8)	3,294 (1.2)	1,190 (7.4)	3,491 (6.0)
	시장소득	935	2,813	1,039 (1.9)	3,121 (6.0)	991 (-4.7)	3,140 (0.6)	1,061 (7.1)	3,317 (5.6)
	가처분소득	968	2,679	1,063 (2.6)	2,985 (6.1)	1,039 (-2.3)	3,013 (0.9)	1,106 (6.4)	3,174 (5.3)
	가계소비	878	2,475	1,005 (3.1)	2,718 (5.2)	1,024 (1.9)	2,776 (2.1)	1,089 (6.4)	2,961 (6.7)
	소비지출	708	1,945	812 (4.6)	2,114 (4.9)	804 (-1.0)	2,149 (1.7)	843 (4.9)	2,287 (6.4)
	비소비지출	170	530	193 (-2.8)	604 (6.4)	220 (14.0)	626 (3.7)	246 (12.1)	674 (7.6)
	흑자가구	68.3	77.9	66.8	77.8	67.3	78.9	65.2	77.8
	적자가구	31.8	22.2	33.2	22.2	32.7	21.2	34.8	22.2

주: 1) 소득과 소비지출은 가구규모(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균등화 값임.

2) 적자가구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가구로 정의됨.

3)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나고 있다. 점유형태별로는 2010년 기준 단독가구의 자가비율은 39.9%로 다인가구의 자가비율 65.3%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단독가구의 월세비율은 26.7%로 다인가구(10.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06년과 비교해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 단독가구의 주거사정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공·사 이전소득)은 1,190천 원으로 다인가구 3,491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 이전소득)은 1,061천 원으로 이는 다인가구의 3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²⁾ 1인 가구의 경상소득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소득의 증가율이 -4.7%로 감소폭이 가장 큰 특징을 보인다. 같은 기간 다인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전년대비 0.6%로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가구소비(2010년 기준) 또한 단독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는 1,089천 원으로 다인가구의 2,961천 원의 35.5% 수준에 그치고 있고 소비지출(843천 원)이 가처분소득(1,106천 원)의 76.2%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저축여력이 미약함을 짐작케 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가구로 정의되는 적자가구의 비중은 2006년 기준 단독가구에서 31.8%로 다인가구 22.2%보다 9.6%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독가구의 적자비중은 2010년 34.8%까지 증가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단독가구의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은 41.2%, 자영자와 무직자 가구 비중은 각각 11.6%, 47.2%로 분석되고 있다. 다인가구의 임금근로 및 자영자 비중은 58.2%, 28.0%로 단독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무직자 가구의 비중은 13.8%로 단독가구와 33.4%p 차이를 보여 단독가구의 다수가 취업취약 계층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상태에 있는 단독가구의 종사상 지위를 다인가구와 비교하면, 상용직 비중에는 16.1%p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각각 15.0%p, 8.2%p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어 있다. 아울러 취업자의 직종분포를 가구유형별로 비교하면, 관리전문직, 사무직 비중이 다인가구와 상당한 격차로 나타나고 1인 가구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가구규모(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소득(경상소득 기준)으로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2인 이상 다인가구의 60% 수준에 이릅니다.

<표 4> 1인 가구의 노동시장 특성: 다인가구와의 비교

(단위: %)

		2006		2008		2009		2010	
		단독 가구	다인 가구	단독 가구	다인 가구	단독 가구	다인 가구	단독 가구	다인 가구
가구구분	근로자가구(임금근로)	41.2	58.2	37.5	59.6	40.3	60.2	43.8	60.4
	근로자 외(자영자가구)	11.6	28.0	12.8	26.3	11.4	25.3	12.4	24.8
	근로자 외(무직자가구)	47.2	13.8	49.8	14.2	48.4	14.4	43.7	14.8
종사상 지위	상용직					31.4	47.2	34.1	50.2
	임시직					28.5	16.2	29.5	14.5
	일용직					18.3	7.0	14.3	6.1
	고용주					2.0	8.5	1.6	8.4
	자영자					17.1	19.7	17.8	18.5
	무급가족종사자					0.0	0.1	0.0	0.1
	기타					2.7	1.4	2.8	2.1
직종	관리전문직					8.0	19.1	9.9	18.6
	사무직					5.0	12.6	4.2	12.9
	서비스직					13.7	16.0	14.2	15.1
	기능직					9.2	26.7	10.6	27.2
	단순노무직					15.8	11.0	17.2	11.2
	기타					48.4	14.6	43.8	14.9

주: 1) 다인가구의 노동시장 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2) 종사상 지위는 2009년부터 경찰조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2009년 이전은 비중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단독가구 집단별 특성 분석

1인 가구는 내부이질성이 매우 큰 집단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인 가구는 가구 구성원의 성별·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1인 가구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주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1인 가구의 소득수준과 취업상태를 고려한 집단별 특성도 함께 파악해 본다.

우선 유형별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청년 단독가구의 절반 정도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대졸 및 대학 이상의 비중이 각각 12.5%, 37.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집단이다. 특히 청년여성 단독가구는 동일 비교선상에 있는 청년남성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중이 9.6%로 높게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전문대졸 및 대학 이상 비중이 각각 18.5%, 41.2%로 청년남성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타 집단에 비해 고학력층 비중이 가장 높다. 노년층의 경우는 중졸 이하 저학력층 노인남성 비중이 73.4%, 여성노인이 무려 91.6%로 노인 단독가구 내 저학력층 비중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택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의 자가 및 전세 비중이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에게서 높은 특징을 보였고, 반대로 월세 비중은 청년층과 장년층 순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청년남성 단독가구의 42.8%, 청년여성 단독가구의 45.0%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년남성과 중년여성 또한 월세가구 비중이 각각 49.3%, 21.6%로 비교적 높다. 특이한 점은 중년여성 단독가구는 자가 비중이 50.7%로 가장 높으나, 동일 비교계층인 중년남성 단독가구의 자가 점유비율은 17.6%에 불과했고 가장 주된 점유형태가 월세라는 점이다. 이같이 동일 연령계층 내에서 성에 따라 주거점유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일자리), 원가족(origin family)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단독가구 내에서도 점유형태가 가장 취약한 집단을 월세가구로 상정했을 때, 청년남성과

<표 5> 단독가구 성별×연령별 특성 비교: 2010년 기준

(단위: %)

		남성			여성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학력	중졸 이하	0.6	24.8	73.4	9.6	59.2	91.6
	고졸 이하	49.6	55.0	18.5	30.8	26.9	7.7
	전문대졸	12.5	3.9	0.0	18.5	4.4	0.2
	대학 이상	37.3	16.4	8.1	41.2	9.5	0.6
주거점유형태	자가	8.3	17.6	50.4	8.6	50.7	55.9
	무상	9.3	5.6	13.0	10.3	3.3	13.2
	사택	0.3	0.7	0.0	0.0	0.1	0.0
	전세	39.4	24.3	6.9	35.9	21.8	21.2
	영구임대	0.0	2.5	4.8	0.2	2.5	0.9
	월세	42.8	49.3	24.8	45.0	21.6	8.8
종사상 지위	상용	44.6	28.4	5.8	57.3	20.0	2.0
	임시	15.3	12.4	14.8	14.1	25.4	12.0
	일용	0.0	13.8	3.3	3.3	9.7	5.1
	고용주	1.0	1.1	0.0	0.0	1.8	0.1
	자영자	20.8	16.5	8.0	1.0	9.9	5.3
	기타	0.0	1.9	0.0	0.5	3.3	0.3
	비취업	18.3	25.9	68.1	23.9	29.9	75.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 중년남성에게서 주거불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거불안정성은 입주주택의 공간적, 생활환경적 특성까지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매일 단위로 가계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월세가구는 타 점유형태에 비해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집단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성별 구분 없이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임금근로가 활발하고 특히 단독가구 청년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74.7%로 가장 높다. 장년남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12.4%, 13.8%로 나타났으며, 비취업 가구가 25.9%로 단독가구 장년남성의 절반은 고용불안이나 비취업을 경험하는 취업취약 계층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년여성은 상용직 비중이 장년남성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은 두 배가량 높고 비취업 비중 또한 높아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있다. 노년층의 경우는 청년층이나 장년층보다 고용사정이 열악하며, 남성과 여성노인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단독가구 남성노인의 약 70%는 비취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15%가량은 임시직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다. 여성노인은 75%가량이 비취업상태에 있고, 17%는 임시·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상용직은 단 2.0%에 불과하다.

<표 6>에서는 단독가구 집단별, 소득항목별 규모와 소득원 구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단독가구 전체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소득(경상소득 기준)은 약 58%의 근로소득과 18%의 사업소득, 22%의 이전소득(공사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2인 이상 다인가구의 소득구성과 비교해본 단독가구는 약 20%p 이상 근로소득이 낮고 6%p 이상 사적 이전소득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즉 노동소득 확보를 위한 부족한 가족자원은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고, 원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사적인 자원의 가구 간 이동을 통해 낮은 소득원을 보충하는 가계재무 구조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별로 세분하면, 가구소득의 절대적 규모는 남성의 경우 장년층-청년층-노년층 순으로 높고, 여성의 경우 청년층-장년층-노년층 순으로 나타난다. 노년층 가구소득은 노동시장 은퇴 등 근로소득 감소 및 공적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큰 폭으로 감소되는데 남성노인의 경우 청년과 장년세대 소득의 43% 수준에, 여성노인은 타 세대의 40% 수준에 채 미치지 못한다.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청년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폭이지만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년층에서는 여성의 근로소득이 남성의 70%에 미치지 못한다. 단독가구의 근로소득은 세대간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노인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182천 원으로 이는 청년과 장년세대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여성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83천 원으로, 사업소득 64천 원을 합산하더라도 노동시장을 통해 분배된 소득이 15만 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를 여성 청년세대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약 10% 수준에, 장년세대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6> 단독가구 성별×연령별 소득구성: 2010년 기준

(단위: 천 원, %)

		전 체	남성			여성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소득금액	근로소득	690	1,303	1,171	182	1,327	788	83
	사업소득	220	196	373	57	21	327	64
	재산소득	14	0	5	2	4	25	17
	공적이전	120	11	63	273	17	94	203
	사적이전	147	127	53	194	162	118	239
	경상소득	1,190	1,636	1,663	708	1,530	1,353	606
구성비	근로소득	58.0	79.6	70.4	25.7	86.7	58.3	13.7
	사업소득	18.5	12.0	22.4	8.0	1.3	24.2	10.6
	재산소득	1.2	0.0	0.3	0.3	0.3	1.9	2.8
	공적이전	10.0	0.6	3.8	38.5	1.1	6.9	33.5
	사적이전	12.3	7.7	3.2	27.4	10.6	8.7	39.4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인의 근로소득이 젊은 세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비평활화가 가능할 만큼 안정적인 근로생애를 축적하지 못했거나 혹은 생애에 걸친 재분배 기능(piggy bank function)을 감당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의 노인은 노동시장 참여가 강제되고, 또 이들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은퇴 후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가구에서는 그 무게가 가중된다.

소득계층별로 취업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표 7>에서는 1인 가구의 빈곤화 현상이 다인 가구에 비해 뚜렷하고 동시에 최근 들어 빈곤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기준 단독가구의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층은 31.6%로 이는 같은 기간 2인 이상 다인가구의 9.7%에 비해 무려 21.9%p 높은 수치이다.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차상위 계층 비중과 150% 미만의 차차상위계층의 비중도 각각 5.6%, 8.4%로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41.4%로 2006년에 비해 약 10%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심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다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0.1%로 2006년에 비해 0.4%p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를 이룬다. 최저생계비 150% 미만까지로 빈곤계층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5%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상태와 빈곤을 함께 고려해 보면,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원이 홀로 존재하는 1인 가구의 경우 비취업은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2006년과

<표 7> 1인 가구의 소득계층별×취업상태별 구성비 변화

(단위: %)

1인 가구		2006				2010			
		취업		비취업	전체	취업		비취업	전체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빈곤층	절대빈곤층	3.0 (9.6)	1.7 (5.4)	26.9 (85.1)	31.6	6.6 (16.1)	1.5 (3.6)	33.2 (80.4)	41.4
	차상위층	1.1 (19.8)	0.9 (15.0)	3.7 (65.2)	5.6	1.4 (25.0)	1.1 (19.4)	3.0 (55.6)	5.4
	차차상위층	2.3 (27.5)	0.7 (7.7)	5.5 (64.9)	8.4	3.3 (58.6)	0.1 (2.4)	2.2 (39.0)	5.7
비빈곤층		34.7 (63.8)	8.4 (15.5)	11.2 (20.7)	54.4	32.5 (68.4)	9.8 (20.5)	5.3 (11.1)	47.5
다인가구		2006				2010			
		취업		비취업	전체	취업		비취업	전체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빈곤층	절대빈곤층	2.7 (28.0)	1.7 (17.8)	5.2 (54.2)	9.7	3.1 (31.0)	1.0 (10.1)	6.0 (58.9)	10.1
	차상위층	1.9 (50.7)	1.1 (29.2)	0.8 (20.1)	3.7	2.1 (59.5)	0.8 (23.9)	0.6 (16.6)	3.5
	차차상위층	3.6 (51.7)	2.2 (32.1)	1.1 (16.3)	6.9	3.2 (53.3)	1.7 (28.1)	1.1 (18.7)	6.1
비빈곤층		51.5 (64.6)	24.2 (30.3)	4.0 (5.1)	79.7	54.0 (67.2)	22.2 (27.7)	4.1 (5.1)	80.3

주: ()는 소득계층별 구성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0년 모두 절대빈곤층의 비취업 비중은 85.1%와 80.4%로 절대빈곤층 대다수가 비취업 상태에 놓여 있고, 차상위층과 차차상위층의 비취업 비중 역시 65.2%, 64.9%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다인가구의 해당 비중은 2006년과 2010년 모두 단독가구의 그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1인 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최저생계비 150%를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은 2006년 9.7%에 2010년 14.0%까지 증가한 반면, 다인가구는 같은 기간 13.2%에서 11.9%로 오히려 1.3%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1인 가구의 빈곤화현상은 비취업에 의한 노동소득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는 특징과 함께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저소득 지위에 머무르는 근로빈곤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경제 및 노동시장 특성과 변화를 2인 이상 다인가구와 비교해 보았다. 또한 1인 가구의 내부이질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1인 가구를 분류하고 주요 특성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다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단독가구는 여성, 청년층 및 노년층, 저학력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나타나며, 단독가구 내에서는 장년층 비중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청년층 단독가구의 경우 고학력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는 결혼관의 변화 등에 따른 만혼화 현상과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단독가구의 주거환경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다수의 가구가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적자가구로 분석되어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44%(2010년 기준) 정도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숙련 직종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를 유형화(성×연령, 소득수준×취업상태)하여 특성을 분석해 보면, 청년 및 장년층에서는 주거불안이 심화되어 나타났고, 노인층의 경우 고용사정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독가구의 일자리 악화는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져 단독가구 내 세대간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미비와 연결되면서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단독가구의 소득수준과 취업상태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단독가구의 빈곤화 현상이 뚜렷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근로빈곤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했고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형성요인(고령화, 노동시장 경쟁구도, 가족해체, 만혼화 등)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는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등장했고 기존 2세대 4인 가족 중심의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인 이상 다인가구 중심의 주거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정책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고용에 의한 충분한 소득원 확보가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반정호(2011), 「가구 구성방식의 다양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 복지정책』 38(1), pp.85~111.

변미리(2008), 「서울의 1인가구 현황과 도시 정책 수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가구주택) 결과」, 보도자료.

Massey, D. S.(2007), *Categorically Unequal: The American Stratification System*, New York: Russell Sage Found.

Western, B.(2006), *Punishment and Inequality in America*, New York: Russell Sage Found.